



지난해 '최고 기대작'으로 꼽혔던 영화 '승리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극장을 뛰어넘고 2월5일 넷플릭스로 곧장 직행한다. 사진은 영화의 한 장면. 사진제공 | 넷플릭스

한국산 우주 SF·장르의 확장 시험대

내달 5일 OTT 통해 190개국에 공개 "거대 제작비 승리호 흥행 여부 관심 이후 한국영화 OTT행 영향 미칠 것"

'승리호'가 날아온다. 영화 '승리호'가 2월5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개국에서 공개되는 가운데 향후 한국영화의 흐름에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본격적인 우주SF 장르를 표방한 영화를 바라보는 시선이 한국영화의 다양한 장르 확장 가능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넷플릭스 등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새로운 플랫폼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영화계 안팎의 시선이 쏠린다.

●첫 우주SF 블록버스터...장르의 확장 '승리호'는 2029년 광활한 우주를 배

경으로 한 SF영화이다. 돈을 벌기 위해 우주로 날아간 우주쓰레기 청소선 승리호의 선원들이 대량 살상무기로 알려진 인간형 로봇을 발견한 뒤 벌어지는 이야기다.

우주 SF블록버스터임을 내세우는 영화는 또 하나의 한국영화 장르를 안착시킬 수 있을지 내다보게 하는 가능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억원대의 대규모 제작비를 들인 영화가 이제껏 한국영화 가 봐야보지 않은 우주라는 공간을 어떻게 그려낼지 호기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인터스텔라' '마션' '그래비티' 등 우주의 광경을 스펙터클하게 담아내면서 동시에 인간의 처절한 생존 투쟁기를 그린 할리우드 SF영화가 국내에서도 흥행의 힘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승리호'에 거는 영화계 안팎의 기대감도 작지 않다.

●송중기·김태리·유해진... 톱스타 경연장 '승리호'는 송중기를 비롯해 김태리, 유해진, 진선규 등 관객에게 낯익은 연기자들이 대거 등장하는 작품이다. 각각 다양한 작품으로 관객과 시청자의 신뢰를 높여온 만큼 이들의 조합만으로도 일찌감치 기대를 모아왔다. '1987' '도둑들' '암살'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등 스타급 배우들이 대거 출연해 각기 이르기에도 관객의 시선을 모은 '멀티 캐스팅' 작품의 연장선상에 서기도 하다.

송중기는 2012년 자신을 본격적인 스타덤에 오르게 한 영화 '늑대소년'의 연출자 조성희 감독과 다시 한번 손잡았다. 돈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는 조중상 역할을 승리호를 이끈다. 김태리는 우주해적단 출신 리더, 유해진은 작살잡이 로봇이라는 독특한 캐릭터로 각각 작품에 나섰다. 진선규는 기관사 역할이다.

●한국영화, OTT행 가속화? 당초 '승리호'는 지난해 여름 극장 개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추석 시즌, 다시 겨울로 개봉 일정을 연기했다. 감염병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끝내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넷플릭스로 직행했다. 거대 제작비를 들인 한국 블록버스터물의 첫 넷플릭스행이라는 점에서 영화계 안팎에 충격을 줬다. 영화계는 '승리호'에 대한 일반의 평가와 반응에 따라 향후 흐름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한 영화관계자는 "넷플릭스가 '제작비+α'의 방식으로 콘텐츠를 공급하는 상황에 거대 제작비를 들인 '승리호'에 이용자들이 어떤 평가를 내놓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승리호'의 흥행 여부가 한국영화의 OTT행 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yunyusu@donga.com



블랙핑크 | 있지

'4세대 걸그룹' 글로벌 대전

블랙핑크 로제·지수 솔로활동 시작 있지, 전세계 동시 첫 영어 앨범 발표

4세대 걸그룹을 대표하는 블랙핑크, (여자)아이들, 이지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며 글로벌 행보를 이어간다. 감염병 확산 여파로 직접적인 해외활동보다는 좀 더 다양한 시도도 영역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다.

지난해 방탄소년단과 함께 케이팝을 주도한 블랙핑크는 올해 그룹과 멤버별 솔로 활동을 병행한다. 지난해 세계 양대 차트인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픈업 차트에서 동시 2위를 차지하는 등 글로벌 스타로 자리매김한 만큼 멤버별 솔로 활동에도 해외 팬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6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로제와 리사, 지수가 2016년 데뷔 이후 처음으로 솔로로 나서며 보폭을 넓힌다. 제니는 2018년 '솔로'(SOLO)를 발표하며 멤버 가운데 가장 먼저 홀로 무대에 섰다. 로제와 리사는 최근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쳤고, 순차적으로 솔로곡을 발표한다. 구체적인 발표 날짜는 현재까지 미정이다. 지수는 현재 드라마 '실감형' 촬영 중이어서 멤버 가운데 마지막으로 솔로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자)아이들은 '셀프 프로듀싱 그룹'이라는 타이틀을 확고히 다진다는 각오다. 강집인 '창작'에 중점을 두며 국내외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들은 11일 전 곡 자작곡으로 컴백한다. 그동안 자작곡을 모두 흥행시킨 리더 소연뿐 아니라 민니와 우기 등도 참여한 네 번째 미니음반 '아이 번'(I burn)을 선보인다. 앨범마다 각기 다른 콘셉트로 팬들의 시선을 끈 이들은 이번에도 강렬한 퍼포먼스와 음악으로 한 단계 성장할 전망이다.

'괴물 신인' 이지도 22일 첫 영어 앨범 '낯 사이'를 전 세계 동시 발표한다. 영어 싱글을 포함해 앨범 동명 타이틀곡과 '워너비', '아이씨', '달라달라' 등 기존 네 곡을 영어로 편곡해 담았다. 본격적으로 글로벌 행보를 시작하겠다는 의도이다. 여느 글로벌 스타들처럼 발표 당일 오후 1시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 팬들을 대상으로 라이브를 진행한다. ijehy@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빅3' 올해는 다작!

설경구 '자산어보' 등 5편 개봉 앞뒤 최민식 '해본' 이어 드라마 컴백까지 송강호 '비상선언' '1승' 등 3편 주연



설경구 | 최민식 | 송강호

배우 최민식, 송강호, 설경구가 올해 다작을 예고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한국영화를 대표하는 스타들이지만 이들의 활약에 거는 영화계 안팎의 기대가 작지 않다. 설경구(53)가 세 사람 가운데 가장 바쁜

행보를 걷는다. 설경구는 '자산어보'를 비롯해 '소년들' '아차' '킹메이커'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의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이미 촬영을 마쳤거나, 현재 작업 중인 영화에다 신규 출연작까지 다채롭다.

1990년대 중반 스크린에 데뷔한 이후 가장 바쁜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최민식(59)은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와 '해본:행복의 나라로' 등으로 새롭게 관객을 만난다. 안방극장으로도 발길을 돌려 1997년 '사랑과 이별' 이후 24년 만에 드라마 '카지노'를 신작으로 검토 중이다.

송강호(54) 역시 '비상선언'을 시작으로 '1승', 일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연출하는 '브로커' 등으로 설 틈 없이 카메라 앞에 나선다. 특히 항공재난 영화를 내세운 '비상선언'에서는 전도연·이병헌, '브로커'에서는 강동원·배두나와 함께 손잡

고 이야기를 이끌게 됐다. 세 사람은 그동안 다양한 작품으로 극장을 장악해온 배우들. 1990년대 후반 한국영화가 부흥의 맛을 올린 순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흥행 파워를 과시해왔다. 특히 50대 주연급 배우로서 연기자 연령층을 확대하며 자신들의 영역까지 넓혀왔다. 그만큼 관객 신뢰도가 두터움을 말해준다. 연간 한 편 가량이 머물며 신중하게 작품을 선택해온 이들이 각기 행보에 좀 더 속력을 내면서 올해 스크린을 좀 더 풍성하게 하는 데 힘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yunyusu@donga.com

'자본공유앱APP' 발명특허 등록 제10-2143479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흔들림없이 추진합니다

기본소득 300만원 평생지급
노모식의 포용국가론
특허출원 제10-2020-015407호
공익일자리 무한창출 기본소득 스마트플랫폼

성경 기부경제학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흔들림없이 추진합니다

후손과 1030세대를 위한 인류의 유일한 단일회사 - 스마트플랫폼 하이우분투(주)

기본소득 300만원 평생지급

반려동물 (개, 고양이) 까지 기본소득 150만원 지급 (선착순/가구당 1마리씩)

일자리도 없는데 대학가기 위해 **수능은 왜 보나?**
무식한 교육부야! / 등신 학부모야! / 철밥통 관료들야!
씩을 때로 씹어 줌비와 다름없는 정치인들야

이생망, 헬조선, 흠수저, 자살송을 퍼트리며 자살하는
- 1030세대 (39세까지) 알

환경과 사람 살리는 최고품 최저가 모든 재화 및 기본소득 300만원 이상 평생 무상증여, 투자 전혀 없이 단 한명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고 전인류 반려동물 누구든 모두 선착순 자동부자 우분투 기본소득 신 르네상스 코스모스 프로젝트

총익일자리 무한창출 기본소득 스마트플랫폼
 인류의 구세주
 21세기 제2의 석유
 K-biz, K-pay, K-platform
 성경기부경제학
 자본공유앱APP
 선착순 자동레이기부 품앗이게

문의처
세계교회 대혁신 "총익일자리 무한창출 교회 종교재단" 등록!!!
 ● 총재 황호관 목사 010-6249-5892 ● 비서실장 임승호 목사 010-5329-9097 ● 사무총장 윤병모 목사 010-5063-8831 ● 사무국장 김서만 목사 010-4277-0691
 ● 본부교회 김기성 목사 010-4688-3491

● 서울 백인초 010-6462-6712 / 역삼 황비 010-5647-5428 / 김석우 청국장 010-7653-5373 / 이주자 010-9339-8649 / 신비전 010-9220-4334 / 김명배 010-8290-8801 / 강명석 010-3274-5289
 ● 부산 김정주 010-9852-6452 / 백삼석 010-7309-1000 / 민명수 010-5118-5263 / 김현성 010-3315-1517 / 심정희 010-5644-2788 / 윤영기 010-4424-7161 / 우영남 010-4741-7008
 ● 조현교 010-7374-4111 / 서재운 010-8770-2935 ● 대전 김진구 010-8029-0059 / 김용환 010-3742-5998 / 전달민 010-2391-8259 ● 대구 전영희 010-4846-4950
 ● 울산 시영희 010-8003-5323 / 최혁수 010-4830-1810 ● 창원 이철배 010-3572-4616 / 이승현 010-5769-0532 ● 천안 김태덕 010-6258-3510 / 오명수 010-8904-3424
 ● 인천 박윤표 010-3227-0993 / 주연 용원표 010-6717-1779 / 서도원 010-3489-4190 / 김보홍 010-8488-2999 ● 김포 정재호 010-6416-1888 ● 이천 김찬석 010-4707-2659
 ● 원주 최현호 010-5177-9479 ● 여주 삼근영 010-8513-3833 ● 용인 김기영 010-6285-7653 ● 수원 원민드라마 010-3435-0158 / 박우영 010-5221-8119 / 김명대 010-8005-3616
 ● 경기 남부 황베드로 010-6806-1931 / 노수길 010-5153-5983 ● 평강 고평철 010-5463-6952 ● 중국 송동우 010-4280-4616 / 남미옥 010-6852-8897 ● 화웨이 윤이나 010-8763-8742

하이우분투(주)
Hubuntu 1644-6733